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11 사명도

오과 화풍 완성한 당인, 화폭에 문기 담아

명대 중기 이후에는 고상하고 격조 있는 화법을 통해 깊이 있는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문인들이 중국의 화단을 지배하게 된다. 특히 이들 활동의 근거지가 됐던 소주지방에서는 지역 출신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문인적 취향과 심미안을 공유하는 문인집단이 형성됐다. 이들 중 오늘 그림으로 소개할 당인(唐寅, 1470~1523)은 시·서·화에 정통한 문인이었으며 특히 소주지방에서 활동했던 오과(吳派)의 화풍을 완성한 인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그의 생애

가 놓여 있고 뒤편으로는 책장이 보인다. 초옥의 주변에는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섬세하고 우아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별채에서는 동자가 부채질 하며 차를 끓이고 있다. 이제 곧 차모임이 열릴 모양이다. 찻물 끓는 소리가 들릴 때 즈음해 벗이 찾아온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이 있을까. 때마침 오른쪽에 위치한 다리에는 한 인물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 뒤로 거문고를 안은 동자가 조용히 따르고 있다.

비운 뒤의 아슬라한 대가 저 멀리로 신비로운 모습의 산과 폭포가 보인다. 이 그림이 선사하는 묘한



당인(唐寅), <사명도(事茗圖)>, 지본채색, 31.1x105.8cm,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당인의 부친은 식품업에 종사한 상인이었다. 이러한 출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당인은 문인사회에 입문했으며 당대 저명한 스승들로부터 교육받는 행운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1498년 남경에서 열린 향시(鄉試)에 1등으로 합격하면서 문인으로서의 삶은 최고조에 이른 듯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도 잠시, 다음해 북경에서 치러진 회시(會試)에서 그는 시험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불운을 겪고 말았다. 이후 그는 여생을 글과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처연한 처지가 되는데, 타고난 신분을 뛰어넘어 학자로 인정받았으나 끝내 그림을 팔아 생활하는 직업화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때문에 그는 평생을 문인과 중인이라는 신분적 갈림길과 문인화가와 직업화가는 직업적 갈림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림 속에는 그의 문기(文氣)와 기량이 한데 응축돼 있다. 그가 보여주는 예술적 성취는 바로 자신의 드라마틱한 인생이 걸어야 했던 극렬한 모순성과 이것의 예술적 승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원숙한 필치로 그려진 <사명도(事茗圖)>는 당인의 예술관이 잘 드러나는 수작이다. 푸르고 무성한 이는 여름, 문인들이 서로 만나 품다(品茶)를 하려는 정경을 담고 있다. 화면 가운데 초옥에 앉아 있는 선비는 정신을 모아 독서에 집중하고 있다. 책읽기와 차를 좋아하는 인물인 듯, 그의 곁에 제량호(提梁壺)

매력은 바로 초옥을 감싸 앉은 바위와 산의 형태와 깊이 관련이 있다. 당인은 과감하게도 차회(茶會)라는 문인적 소재 안에 직업 화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과량감 넘치는 산형을 조화시켰다. 인간을 압도하는 북송대 과회화풍의 산형을 부드럽게 변형시켜 인적이 드문 곳의 신비로운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진한 먹색으로 그려진 바위는 작품의 전체적인 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아한 색감의 초옥과 대비를 이루며 그림 전체의 공간감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그림은 상반되는 화풍과 필묵법을 훌륭히 융합시켜 결국 그만의 화풍을 만들어 냈다. 바위의 색을 머금은 원편의 여백 위에는 그의 심회를 담은 시 한 수가 적혀있다.

긴 여름날에 무엇을 할까? 차를 즐기며 지내야겠네. 아까 남쪽 창 아래에는 맑은 바람이 귀밑머리까지 가득하리.

日長何所事 茗碗自怡神 料得南窓下 清風滿鬢絲 (역: 박동춘)

여름날 차 한 잔을 마시고 온몸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 머리까지 시원해졌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문기어린 그림으로 높은 이상을 추구했던 당인. 그의 차향기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사이언스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8 해인사 무생계 수계법회



1326년 8월, 무생계 수계법회가 열렸다. "이것이 최상승의 무생계이니, 모든 선을 짓지도 말고, 모든 악을 짓지도 말아야 한다." 제자 각경(覺慶)은 서천(西天) 선사로부터 무생계를 받는다. 그리고 682년 전에 각경 스님이 받은 계법이 1992년 해인사에서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의 목조불상인 비로자나불상 복장물에서 발견된다. 계법의 표지에 그려진 변상도에 그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받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5일 합천 해인사에서 네 번째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갈마아사리 종진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계를 받은 불자들은 무생계를 따라 읽으며 잠깐 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그날의 모습은 그 옛날의 변상도를 보는 듯 했고, 그림 속의 주인공은 무생계를 받고 있었다.

옛 판화의 세계

집안이 모두 깨달음을 이룬다 전가오도(全家悟道)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인도 유마거사, 신라의 부설거사와 더불어 불교 3대 거사로 꼽히는 중국의 방거사 이야기로, 거사가 석두 화상과 마조 화상의 인가를 받고 깨우침을 얻은 후 은 가족이 다 진리의 눈이 열리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방거사의 이름은 은(隱)이요, 자는 도현(道玄)이니 형양 사람으로 아버지는 형양(衡陽)에서 태수(太守)의 벼슬을 했다. 잠시 성남에서 살 때 수행할 암자는 가택 서쪽에 다 세우고 수년 뒤에는 전 가족이 득도하니 지금의 오공암(悟空庵)이요, 후에 암자의 아래 있는 옛 집을 회사하니 지금의 능인사(能仁寺)이다. 거사에게는 처와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대나무 그릇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사는 먼저 석두(石頭) 스님에게 참학(參學)하고 난 후 마조(馬祖) 스님을 알현한 후에는 본심(本心)에 계합하니 일마다 깊게 통하고 도에 계합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당나라 때의 거사 방은은 형양 사람이다. 그는 집안 대대로 유교를 얻으로 삼았는데 젊어서 번뇌의 고된 것을 깨달아 뜻을 세워 진제(眞諦)를 구했다. 처음 석두 화상을 만나자 말을 잊고 종지를 이해했다.

이때 석두 화상이 물었다. '선생은 이 노승을 만난 이래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소?' '만약 일용사를 물으신다면 입을 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승을 지어 바쳐 일했다. '날마다 하는 일 새로운 것 없습니다. 나하고 저절로 만나질 뿐입니다. 취하고 버릴 물건 하나도 없고, 거슬리고 어긋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붉은 빛 자루 및 분별하는 이 누구입니까, 언덕과 산터미에 티끌 하나 없습니다. 신통과 묘한 작용이라는 것, 물 길고 나무하는 일입니다.' 이 계승을 본 석두 화상은 머리를 끄덕이고 말했다. '선생은 스님인가? 속인인가?' 그는 대답했다. '내가 사모하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머리를 깎고 옷에 물들이지 않았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방거사를 유마의 후신이라 일컫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의 위치에서 보면 진실과 허망 역시 틀이 아닌 것이며, 승도, 속도 틀이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틀이 아니요, 번뇌가 있으므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깨침의 자리는 성현과 범부가 따로 없으며, 도의 세계와 일상생활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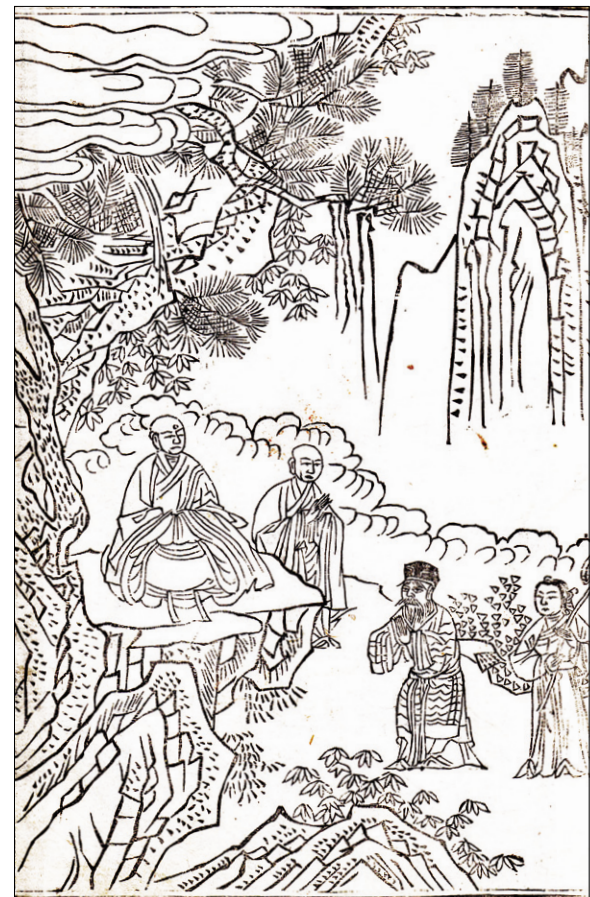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박물관 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물소리 들리는 밤

세상 한 모퉁이를 흘러가는
가슴 찢긴 사람들
속살 환하게 다 드러내고 우는 저 물소리와
물소리의 모서리에서
밤새 등 기대고 우는 사람들
실꾸리 같은 생의 늪에서
늪의 생, 감아 올리며
밤새 호롱불 밝히려자 세우며
베를에 앉아 베를 짜던 통통 부은 한 여자의 얼굴이
물소리에 감겨 돌아오는 밤이다.

-이영춘, <통일과 문학> 가을호



고관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전가오도(全家悟道)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x18.0cm

정확하고 올바른 다라니 독송은 그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덕산/신국판/294쪽/12,000원

천수경과 대비주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

진언의 원문인 범자가 중국의 한자로, 그것이 다시 한글음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진언의 발음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저자는 가법달마와 불공 역 한역본의 대비주, 고려대장경 안의 대비주, 망월사본 대비주,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대비주 등 여러 판본들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현재 독송되고 있는 현행대비주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비주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을 시도하였다.

소백산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노선사의 서슬퍼런 선기와 파격의 사자후!



행복을 쫓아가지 마라

경북 영주 일대에 '육쟁이 스님'으로 유명하면서 어린이같은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는 봉철 선사. 일반 불자들에게는 낯설지만 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그 이름이 가볍지 않은 봉철 선사. 이 책을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견 파격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번뜩이는 선기와 사자후로 제자들을 제정하는 한 자유인이 내뿜는 선의 향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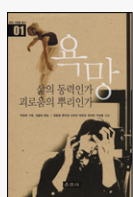
김상백 엮고 씀/사륙판양장/238쪽/9,500원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한자경 외/신국판양장/400쪽/18,000원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우희중, 김진우 외/신국판양장/504쪽/23,000원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면역학에서의 성찰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윤원철 외/신국판양장/396쪽/20,000원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상좌부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주문 (02) 3672-7181 북디북 www.buddhabook.co.kr